

이공계 기피현상과 국내·국외 박사

올해 서울대 물리학과 커트라인이 형편없이 추락했다는 소식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몰고온 최악의 사태다. 서울대 물리학과와 화학과는 한때 우수한 두뇌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인기학과였다. 우리나라에서 기초과학분야 학과가 인기를 잃은 지는 오래다. 어렵게 기초과학을 해보았자 좋은 직장, 좋은 대우논커펀 일자리마저 찾기 힘들다. 인기 있다고 하는 IT분야 전공자도 취직하기 힘든 요즘 기초과학을 한 사람이 갈 곳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기초과학 전공자는 자연 석·박사 과정을 밟게 된다. 석·박사 학위를 가지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리라 본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매년 국내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의 수가 1천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국내 박사는 갈 곳이 없다. 올해 서울대 자연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정원 77명에 크게 모자란 50명이 응시한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서울대가 이럴할진대 여타 대학의 경우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국내에서 기초과학분야가 인기를 잃게 된 데는 국내 박사 푸대접도 큰 요인이다. 70년대부터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자리는 주로 외국 박사 학위자들에게 돌아갔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도 마찬가지였다.

우수 연구자를 해외로 유출하는 엉뚱한 결과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일본과 같은 나라는 오래 전부터 국내 박사를 우대했다. 특히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외국 박사는 한동안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땀어도 일본에 돌아와 활동하려면 다시 국내 박사학위를 따야 했다.

우리나라도 이젠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세대와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등 우수 대학에서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이학박사 학위과정만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이공계 기피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학부 학생은 물론 이들이 해외에서 석·박사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파격적인 조치들을 취했다. 하지만 이들 조치는 우수 두뇌를 해외로 유출하는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다.

연구는 우수한 연구자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연구는 팀웍이 핵심이다. 우수 연구자를 중심으로 이를 돕는 석·박사들이 팀웍이 되지 않고는 연구 자체가 어렵다. 특히 대학에서의 연구는 석·박사 과정에 있는 우수 인력의 역할이 크다. 이들이 허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부자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로부터 이공계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어 대거 받아들이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한 사람을 낳아 길러 대학까지 교육시키는데 1억 원은 들여야 한다고 한다. 잘 사는 나라는 장학금을 미끼로, 1억 원을 들여 길러낸 우수 과학두뇌를 값싸게 들여다 쓰고 있는 셈이다.

우리도 우수 과학인력의 활용에 지혜를 모아야한다. 국내 석·박사과정의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장학금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대학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강사료를 생할 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국내 박사를 일정 비율 채용하는 할당제 도입 등 조치가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174

글 이광영 | 과학문화진흥회 부회장

